



이학수 정읍시장,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동참

이학수 정읍시장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 중인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인구문제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출생 축하금 지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서남권 소아 외래진료센터 설치 △육아수당 지급 △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급 △구직지원금 지급 등 생애주기별·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농협-농가주부모임연합회, '찬찬찬' 반찬봉사

전북농협은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와 함께 지난 17일 부안군에서 사랑의 '찬찬찬 밀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매해 실시하는 '찬찬찬 밀반찬 나눔 사업'은 농가주부모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가득 차드는 찬, 반찬, 찬, 도울 찬을 담아 건강과 행복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가 있다.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농가주부모임의 손맛을 더한 열무김치 250개를 지역 어르신들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줄 밀반찬으로 만들었으며,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후원을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왕정동,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운영

남원시 왕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진)는 지난 16일, 마을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일 1가구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이불세탁 서비스는 남원 장애인복지관과 협업체택이나 세탁소 방문이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수거부터 세탁 건조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진행해 생활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손해보험·대성농협, 농기계 무상 점검 캠페인

NH농협손해보험과 대성농협은 지난 18일 대성농협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고창군 심덕섭 군수, 대성농협 박윤규 조합장, 농협손해보험 김영일 부사장, 농협전북본부 이정환 총괄본부장, 농협고창군지부 이미정 지부장, 고창군 농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트랙터, 이앙기, 콤팩트 등 50여대의 농기계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대상 안전용품(LEI경고등, 구급함, 차량용소화기)을 전달하며 농업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NH농협손해보험 김영일 부사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무상점검을 통해 농기계 사고예방 및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미래 세대 성장 돕는 사회적 기여’

전북교육청, 교육기부단 발대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8일 2층 강당에서 2025년 교육기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부는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고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들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퇴직 교직원, 대학 교수, 전문직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개인기부단'과,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유학생 기부단'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부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기부단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멘토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학생 맞춤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대·전주대·군산대의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유학생 기부단은 자국의 전통문화와 언어, 역사 등을 소개하며, 다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기부는 지식 나눔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가능성을 만나게 해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교육기부단의 따뜻한 참여가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기두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일반직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18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일반직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문화 이해 및 소통 강의를 통해 선배와 동료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조성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하며,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추영곤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더욱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정읍시가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주제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펼쳤다.

(사)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지회장 송현) 주관으로 지난 18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시설·단체,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극복과 복지증진에 힘쓴 유공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감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식전공연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대표 문성하)의 무대로 시작됐다. 이어진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장애극복상·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2부 행사에서는 중식 이후 초청가수 공연과 품바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오랜만에 모



인 장애인들이 웃음과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이학수 시장은 기념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의료원, 남원시보건소와 업무협약 체결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17일, 남원지역 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원시보건소의 순회진료를 지원, 지역의 보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남원시 보건지소에 순회진료 의사를 지원, 내과 전문의 등 2명을 이백면과 산동면에 주 1회 배치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의료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오진규 의료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취약지 진료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 제공으로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남원시는 지난 18일 사랑의 광장에서 제45회 남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 장애인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바라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기념사, 축하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장애인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기자랑이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펼쳐졌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모두가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역사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진안군에 고향사랑 기탁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감소지역인 진안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8일, 무주에서 역사·교육문화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박용수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100만원을 진안군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진안군과 무주군 간의 상호기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안군에서는 (주)그린라이프 고영민 대표, 무주군에서는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박용수 대표가 각각 기부해 참여함으로써 지역 간의 따뜻한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에 위치한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놀이·한글 교육프로그램과 무주행교와 함께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들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농협전주시지부-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등 홍보

농협전주시지부는 전주시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와 쌀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우리 전주 쌀의 우수성과 지역 쌀을 활용한 가공품 나눔으로 쌀 소비촉진 효과를 증대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큰 관심 증인 근로소득자를 직접 찾아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하양진 지부장, 이옥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제개발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아침밥 먹기 운동 홍보물과 전주시 답례품으로 선정된 전주농협 현미 누룽지 등을 나눠주며 고향사랑 기부와 아침밥 먹기 동참을 호소했다. /오상근 기자



구천동농협, 등골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 실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 18일 설천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등골길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의 하나로 지역 학생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켜 건강을 증진시키고 학업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해들아! 아침밥 먹고 힘내자!'라는 슬로건으로 구천동 농협 조합장 설천초등학교 교직원 구천동 농가주부모임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쌀로 만든 김밥과, 식혜, 도넛을 나누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무주=전문선 기자